

# 5/14(목) 소설 '동백꽃'의 서술자를 주인공의 친구로 바꾼다면? (1인칭 관찰자 시점)

▼ 주의: 소설 '동백꽃'의 두 주인공은 여러분보다 더 큰 열일곱 살입니다. 우리 함께 열일곱 살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감상해 봅시다.

\* 필수항목

## 서술자를 파악하며 소설 감상하기 단원

관련 교과서 단원: 1. 문학의 눈 (2) 이야기 속 시선 (교과서 26쪽 ~ 45쪽)

### 1. 학번, 이름 \*

예) 20115 홍길동

### <핵심 이론 정리>

- 소설 속의 '서술자': 소설 속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(서술)해주는 사람.
- 시점: 서술자의 위치
- 원래의 소설인 '동백꽃'의 시점은 '1인칭 주인공 시점'이었습니다.
- <1인칭 관찰자 시점>  
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함.  
등장인물 중 주변 인물인 '나'가 주인공들의 곁에서 주인공들을 관찰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이야기(서술)해 줌.

### ○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의 예

안녕 독자들~ 나는 소설 '동백꽃'의 덕건이야. 덕건이가 누구냐고? 남자 주인공 김남주의 친구야. 이제부터는 글로 서술해줄게. 하루는 나무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잠시 낮잠이 들었는데 남주가 찾아왔다. "야 덕건아, 진짜 열 받아 죽을 거 같아." 남주의 말을 들으며 남주 얼굴을 보니 진짜 화가 많이 나있는 것 같다. "순한 니가 무슨 일이야? 이렇게 화가 날 일도 다 있고?" 그러자 남주는 윗집 점순이가 자기네 집 수탈을 괴롭혀서 화가 나 미치겠다고 했다. 나는 무슨 일이길래 평소 아는 척도 안 하는 여자애랑 싸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. 그랬더니 남주가 자기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. 그래서 그래도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 얘기해보라니까. 감자를 준 적이 있는데 안 받고 나서부터 그런단다.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 부러웠다. 이 연애 소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. 이 소설은 김남주와 김점순의 러브 스토리이고 나는 조연이다. 주변인물이다. 주변인물인 서술자이다. 그래도 씩씩하게 이 연애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재밌게 전달해보겠다. 비록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물인 서술자이지만 독자들에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.

## 2. 질문1. 남녀 주인공의 주변 인물 중 누구를 서술자로 설정해볼까요? \*

예) 남자 주인공의 동생 '남수', 여자 주인공의 엄마, 여자 주인공의 동생 '말순', 남자 주인공네 집 수탉 등

---

---

---

---

---

## 3. 질문2. 소설 속 서술자를 주인공들의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소설을 써봅시다. (열 줄 이상 적어보세요.) \*

(전체 줄거리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 쓰고 싶은 부분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.) (1인칭 관찰자 시점) (예시) 내 동생 점순이가 요새 좀 이상하다.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제때 잘 해놓는 것은 전과 똑같은데 요즘 들어 마당에서 아랫집 쪽을 몰래 쳐다보는 일이 많아졌다. 저 아랫집에 점순이 또래의 남자애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애가 그 덕수라는 애한테 관심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.

---

---

---

---

---

## 4. 질문3. 주변 인물이 들려주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? \*

주인공들의 주변 인물이 주인공들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.

---

---

---

---

---

5. <오늘 수업을 마치며> “오늘 수업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?” (※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.)

(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나요?)

---

---

---

---

---

---

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

Google 설문지